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 준공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에서는 남부학술림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교육의 활성화, 산림과학 인재 양성,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한 지식의 사회적 기부,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다양한 산림문화 기회제공 등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59-45 남부학술림 추

산시험장 내에 총사업비 63억원을 들여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를 준공하였다.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는 건축면적 1,762㎡(534평), 연면적 2,868㎡(867평)로써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및 목구조 건물이고, 대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연구실, 행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존 관리동(신 명칭 : 추산생활관)을 리모델링하여 동시에 약 100명 정도를 일시 수용할 수 있는 숙소 전용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산림교육연구센터 준공식은 2018년 2월 23일(금) 15시에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학내인사 50여 명과 박진성 순천대학교 총장, 신현숙 광양시 부시장 등 지역 주민, 정치인,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와 『추산생활관』을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학술림 홈페이지(<http://uf.snu.a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심양농업대학교와의 학술교류 체결



2018년 3월 15일 우리 대학과 중국 심양농업대학교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심양농업대학교는 중국 중점대학이자 동북 3성에서의 농업 관련 핵심 대학으로, 16개의 대학과 57개의 전공학과가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석하 학장, 강규석

기획부학장, 이인복 교수가, 심양농대에서는 왕티에량 부총장, 리동 학장 외 3인이 협정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우리 대학은 중국 동북 3성에서의 농업 관련 핵심 대학인 심양농업대학교와의 교류와 공동협력으로 양국의 농업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학업 및 연구 교류의 활성화로 전문성 향상 및 국제 공동 연구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6~8면_Interview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10면_농기자가 간다

11면_기금출연 소식

12면_농생대 사람들

김수언, 박영환, 안용준 교수 정년 퇴임식



2018년 3월 2일 우리 대학은 정년을 맞이한 김수언, 박영환, 안용준 교수의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김수언 교수(응용생물화학부)는 전국 농과대학에 처음으로 천연물화학을 도입하였으며, 천연물 생합성 연구에서 테르펜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독보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30년간 우리대학에 재직하며 농화학과 학과장 및 응용생물화학부장을 역임하여 교내 행정에서도 기여하였다.



박영환 교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는 천연고분자 기반 생체재료 연구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실크 첨단소재 관련 연구에 큰 공헌을 하였다. 본교 교무부학장,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장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한국섬유공학회장, 한국패션단체총연합회 회장, 그린바이오나노융합기술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본교 및 바이오소재분야의 발전을 이끌었다.



안용준 교수(농생명공학부)는 28년간 본교에 재직하며, 농업해충 및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식물성 살충제 개발에 진력하여 26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해충방제학 분야를 선도하였다. 또한 한국응용곤충학회 회장, 세계곤충학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응용곤충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탁준형 교수, 농생명공학부 부임



탁준형 교수(농생명공학부)

탁준형 교수가 2018년 3월 1일자로 농생명공학부 곤충학 전공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탁준형 교수는 본교 응용생물화학부에서 학부, 농생명공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미국 University of Florida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쳤다. 탁준형 교수의 전공은 해충화학방제학으로, 주요 연구분야는 천연물의 살충 활성기작 규명, 살충제 효력증진 및 제형화 연구 등이다.

〈탁준형 교수: 제게 큰 기회와 믿음을 주신 학부 교수님들과 심사위원 교수님들, 농업생명과학대학, 그리고 학교에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용이 된 지 이제 막 두어달이 지났는데, 교수라는 직함의 무게는, 특히나 한국 최고의 대학의 교수라는 직함의 무게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겁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제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의 제 모습을 돌이켜보았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현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직무와 책임에 걸맞은 연구자와 교육자가 되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박사과정 진학을 결정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처음부터 관악에 다시 자리잡은 지금까지, 글 읽는 재주밖에 없던 못난 남편을 항상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며 응원을 보내준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농생대 인권위원회

농생대 인권위원회 출범

농업생명과학대학 인권위원회는 농생대 내 인권 감수성 고양 및 인권의식 함양을 목표로 2017년 11월에 만들어진 농생대 운영위원회의 공식 산하기구로 2018년 4월부터는 2기를 모집하여 활동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내부 인권 세미나 진행뿐만 아니라 외부 인권 세미나 개최,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등 농생대 내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궁휴(바이오시스템공학 15)에게 인권위원회의 지난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인권위원회의 활동

인권위원회에서는 농생대 내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내부 및 외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위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세미나를 개최한 후, 세미나 결과를 슬로건과 함께 농생대 학생회실 밖에 붙여 홍보함으로써 다른 학우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부 세미나의 주제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성적 지향, 시선 폭력, 성 중립 화장실 등이 있으며, 발제를 맡는 위원이 인권위원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주제로 정하여 세미나를 진행한다. 또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외부 강사 초청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세미나 진행 외에도, 새내기 배움터와 같은 단과대 행사에서 지켜야 할 인권 내규를 만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일도 진행 중이다.

인권위원회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인권 침해 사안 대응이다. 인권위원회에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내부 매뉴얼이 존재하며 제소가 들어올 경우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이 이러한 자체 매뉴얼에 따라 농생대 학생회 등과 연계하여 해당 인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게 된다. 만약 인권 침해 사안이 존재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농업생명과학대학교 인권위원회)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제소가 가능하다.

인권위원회가 나아갈 길

농생대 인권위원회가 출범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인권위원회는 농생대 전체 구성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인권에 대해 서로 공부하고 알아가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농생대 구성원이라면 농업생명과학대학 인권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글의 링크를 통하여 누구나 상시 지원 가능하다. 위원회의 신입 위원이 되면 내부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한 번의 기초적인 인권 교육을 진행한 후 위원회 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남궁휴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농생대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발언이 기초적인 인권 감수성에 기반을 두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농생대 구성원의 전체적인 인권의식 함양이 인권위원회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생회나 위원회 내부 뿐 아니라 농생대 전체 구성원들에게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인권 침해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활동으로 더 발전해나갈 인권위원회와 인권에 대한 농생대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 1 **강권(FM, 술, 장기자랑) 하지 않기**
- 2 **불필요한 신체접촉 하지 않기**
- 3 **외모 평가 하지 않기**
- 4 **이성애 중심적인 발언 하지 않기**
- 5 **상대방을 비방하는 언어 사용하지 않기**
- 6 **삼호존중 하기**

농업생명과학대학 인권위원회

2018년도 1학기 일성장학금 수여식



2018년 3월 7일 11시부터 200동 윤대섭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1학기 일성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일성장학금은 정윤환 일성화학 대표가 출연한 장학금으로 매년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현예린 외 학부생 8명, 현신우 외 대학원생 7명 등 총 1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오천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하 학장, 정윤환 회장, 강규석 기획부장, 김용노 학생부학장 등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자리를 빛내주었다.

목운재단 장학금 수여식



2018년 2월 20일 윤대섭대회의실에서 목운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목운문화재단은 목운 한인규 명예교수가 서울대학교로부터 정년 퇴임을 하면서 재직 중에 받은 상금, 제자들의 출연금, 그리고 사재를 보태서 창립한 재단법인으로, 꾸준한 장학사업을 통해 후배들의 학업에 기여하고 있다. 수여식에는 목운문화재단 한인규 이사, 하종규 이사장을 비롯하여 농생대 이석하 학장 및 각 학생의 지도교수가 참가하였다. 이날 행사를 통해 정미정 최우수졸업자를 비롯하여 21명의 학생들이 총 4,7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2018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입학식



2018년 서울대학교 입학식이 3월 2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 입학하는 신입생은 학부 3,421명(농생대 301명), 대학원 3,214명(농생대 140명)으로 총 6,635명이다. 성낙인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추종자가 아니라 개척자가 될 것이며, '나'를 위한 생각보다 우리를 위해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성을 연마하고 섬김을 훈련하여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축사 연사로 초청된 동경대 고노카미 마코토 총장은 지(知)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체적으로 배우는 힘을 기르기를 당부하며 서울대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였다.

APEC 기후센터와의 업무협력협약식 체결



2018년 2월 8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와 상호간 공동연구 및 연구 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APEC기후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APEC회원국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기후정보 제공, 기후과학 및 응용연구, 개도국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및 연구협력을 위한 인력 및 연구보고서 교류, 학술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개최, 연구·사업협력 등의 협력사안이 체결되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안양시 교류협약체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18년 2월 10일 관악수목원에서 안양시와 상호교류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및 대학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분야 교류,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통한 대시민사업 공동 참여 및 인적·물적 자원 지원, 산림·녹지 분야의 교육·행정 등에 대한 상호 교류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대학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석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이필운 안양시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CFB)는 지난 1월 25일 본교 203동 101호에서 『식품생물공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미국 퍼듀 대학교의 김기홍 교수 등 국내외 15명의 석학을 초빙하여 기능성 식품·생물소재의 기능분석, 생산기술, 고부가가치화 및 기술산업화 등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국내외 연구동향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교내 구성원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안양시 소재)는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 구성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숲에서 숨쉬다, 숲에서 살리다, 숲에서 만나다’ 3가지 주제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새로운 또는 친숙한 관계 속에서 명상, 요가, 차 마시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울증상 및 천식 개선, 스트레스 감소 및 면역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이메일(arbor@snu.ac.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는 서울대학교 수목원 홈페이지(<http://arbor.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생명공학전공 설립 50주년 행사 개최



2018년 4월 27일(금) 식품생명공학전공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호암교 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는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 400여 명이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기념행사는 1부 식공포럼(재학생 및 졸업생 발표), 2부 식공인의 밤(기념식 및 식사) 및 3부(동기들과 못다한 이야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를 통해 동문과 재학생이 하나 된 마음으로 담소와 정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생대 화장품 동아리 '미누시아'

2018년도 1 학기, 농생대에 새로운 동아리가 탄생했다. '미누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동아리는 화장품 동아리로 많은 농생대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동아리의 공동 회장인 정은혜, 선정윤(응생화 15) 두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미누시아의 탄생

서울대학교 최초의 화장품 동아리인 미누시아(minutia)는 영어로 '세세한, 상세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동 회장 정은혜 씨는 '화장품 성분을 상세히 분석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하였으며 선정윤 씨는 "어미의 '시아'라는 글자가 서울대학교를 의미하는 '샤'라는 단어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며 서울대 최초의 화장품 동아리라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미누시아의 탄생은 작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은혜 회장의 지도 교수인 김정한 교수가 두 사람에게 동아리 창설을 제안했다고 한다. "응용생물화학부가 화장품에 많은 관련이 있고 또 많은 농생대 학생들이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았다.

하지만 김정한 교수뿐 만 아니라 두 공동 회장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정은혜 씨는 "동아리의 창설을 위해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김정한 교수님의 학부 연구생으로 있으며 직접 향을 추출하는 등 동아리의 창설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하며 그 동안 모두가 하나되어 미누시아의 탄생을 위해 힘쓰는 알 수 있었다.

미누시아의 첫 걸음

미누시아는 일주일에 한번 정기모임을 갖는다. 정기 모임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하나의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화장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어떤 성분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꼼꼼히 확인한다고 한다. 아직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은 미누시아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정은혜 회장은 전했다. 또 선정윤 회장은 "화장품 관련 기업을 탐방하고 농생대 축제나 학교 가을 축제에 직접 만든 화장품을 파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특히 '화장품 기업 탐방은 미누시아의 많은 부원들이 원하는 활동'이라며 기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다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곳

미누시아는 비록 농생대 동아리지만 중앙 동아리 못지 않게 인문대에서 미대까지 다양한 단과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부터 대학원생까지 학번의 폭도 넓어 선후배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한다. 화장품 동아리이기 때문에 여성 멤버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남성 회원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동아리 내부에서 성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기초 화장부터 색조 화장까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즐겁게 소통한다. 정은혜 회장은 "아직 초반이라 매우 친해졌다고 하긴 어렵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신생 동아리에서 역사 깊은 동아리까지

정은혜, 선정윤 두 명의 공동회장은 미누시아의 가장 큰 목표로 오래갈 수 있는 동아리를 꼽았다. "신설 후 첫 활동이기 때문에 초대회장으로서 그 운영 체계를 견고히 하여 역사 깊은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미누시아는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식 동아리로 인정받지 못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부원들은 모두가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 미누시아는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주 목요일 정기 모임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성실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 화장품에 대한 공부와 재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누시아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에코리더스 임석호 대표(조경학 84)

2001년, 생태계 교란과 농약잔류 등의 문제 해결, 유기농업의 환경보전 가치 확대,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시작되었다. 조경학 전공 84학번 임석호 동문은 지난 2월에 한국친환경인증기관 협회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한국친환경인증협회는 인증기관 지도 사업 및 인증업무의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사단법인이다. 이번 호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가공 과정까지 인증할 수 있는 종합인증기관인 '에코리더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석호 동문을 만나 보았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길



임석호 동문은 1984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던 당시는 고도의 경제발전시기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적었기에 초반에는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장학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그는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진로 고민 끝에 언론사 취직을 목표로 잡고 공부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그를 붙잡았고, 90년대 초부터 그는 지리산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토양학, 재배학 등을 가르치면서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던 당시 그는 화학비료 없이 오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점차 지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친환경농업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길임을 느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7년 정도 머물며 해외 농업을 체험하고 돌아온 그는 이후 지인의 추천을 통해 대구의 한 인증기관에서 국내 친환경인증심사원,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유기인증심사원으로서 3년간 근무하였다. 국내 및 해외인증심사를 진행한 실전적인 경험을 토대로 2014년 5월 에코리더스인증원 대표로 취임하였다.

에코리더스의 친환경 인증에 대하여

임석호 동문이 근무하고 있는 에코리더스인증원(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제 87호)은 친환경인증과 유기농산물 인증을 위한 전문인증기관이다. 이 곳에서는 유기농축산물, 유기농식품, 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이 1000여개의 농가와 20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가 어떤 사료를 먹는지, 농약 대신 병



해충을 어떻게 방지했는지 등의 이력 추적 시스템을 확인한다. 또한 토양 중금속 검사 및 수질 검사와 수확 후 생산물의 잔류 농약을 직접 검사한다. 더불어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현지 직접 방문을 통해 한국으로 수입될 해외농식품의 친환경 인증까지 진행한다.

임석호 동문의 목표

임석호 동문은 “인증기관은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고 전하며 인증기관의 신뢰성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이런 신뢰성을 갖추어 갈수록 인증을 받으려는 농민 혹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점점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에 그는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하려고 노력한다. 현재 국내에는 네덜란드의 컨트롤 유니언 등 4개의 다국적 외국계 인증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에 비해 한국의 인증기관들은 인지도 및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하기 불리하다. 이에 임석호 동문은 이미 우수 인증기관에 오른 에코리더스인증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증기관,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증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 전했다.

농생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임석호 동문은 농생대 후배들에게 새로운 분야에 뛰어 들 수 있는 도전정신을 강조하였다. 그가 이전 인증기관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그는 이러한 일을 하리라고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가진 외국어 실력과 농생대에서 배웠던 전문지식은 인증심사 관련 업무를 맡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더욱이 해외 각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지구 반대편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그의 오랜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는 “농생대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방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익숙하고, 남들이 가는 길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흔한 얘기지만 어떤 길이든 기회는 찾아오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격려의 말을 남기며 인터뷰를 마쳤다. ▶ 학생기자단 제5기 임다빈, 제8기 오윤금, 제8기 남형철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스물 두 번째 주인공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김기석 교수!

김기석 교수는 1995년 충남 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1997년 석사, 2007년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2008년까지 부산대학교 연구원, 2011년까지 미시간 주립대학교 연구원, 2015년까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분석장비개발팀 연구원으로 근무 하였으며 2015년부터 본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현재 응용해석 1, 생체물성공학 및 실험 등의 강의를 진행하며 Damage reduction technology during the carrying of Agricultural products, optimal design of the freshness keeping method for agricultural products 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김기석 교수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교수님이 현재 전공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기석 교수는 학부과정은 농업기계공학을, 석사과정은 제어계측공학을 전공하고, 다시 박사과정에서 농업기계공학을 전공하며 세부전공으로 농산가공 및 생체물성공학을 공부했다. 김기석 교수는 생체물성공학은 농산물 또는 생체에 이용되는 소재들의 기계적, 전기광학적, 전기자기장 물성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기계장치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계측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체들의 거동과 반응을 정량화시킨다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대답했다. 자신이 걸어온 학문적 발자취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전공을 향한 애정이 잔잔하게 느껴졌다.

교수님의 대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김기석 교수는 대학 생활 중 운동 동아리에서 활동했다고 되짚었다. “테니스와 농구를 깊이 있게 했어요. 지금도 테니스는 농생대 교수 모임과 다른 사회인 모임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고 덧붙였다. “재미없게 보냈어요. 남은 시간은 주로 도서관에 있었죠. 거의 1학년 때부터 대학원 진학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보다 계속 주체적으로 나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연구에 흥미를 느꼈어요.” 좋아서 택한 길이었지만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고, 순간을 즐기지 않았다면 지금껏 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하는 김기석 교수에게서 대학시절부터 뜨거웠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김 교수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주변을 돌아보는 시선을 넓힐 것”을 당부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자기를 관리

하는 법에 요령이 있다. 이는 최단시간 안에 목적을 달성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주변을 보며 어울리고 배려하는 시각이 부족한 것 같다”는 안타까움을 전했다.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나를 위한 생활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학생이 여러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기석 교수는 동아리, 운동, 사회경험 등 자신이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경험을 대학생활을 하면서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본인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보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도서 추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김기석 교수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추천했다. 인류의 시작부터 멸종까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책인 만큼 난해하고 결론을 짓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기석 교수는 행복에 관한 저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복인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화학적 근거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행복인지, 정말 사람들은 예전보다 행복해졌는지,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진보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이를 통해 인류가 멸종을 피하고 향해 가야 할 더 나은 진보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김 교수 또한, 현재의 과학 기술 발전으로 미루어 볼 때 실현이 가까워 보이는 인간 신체의 강화 개발이 과연 긍정적인 일일지 의문이 들었으며 막연한 공포심이 들기도 했다는 소감을 밝히며 인터뷰를 끝맺었다.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김기석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추천한 주인공은 지역시스템공학 전공의 송인홍 교수이다. 송인홍 교수의 추천 도서는 다음 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 학생기자단 제9기 김민지, 제10기 임지수

<2018. 01. 23 메디컬투데이>

국내 연구팀, 페트병·음식물 속 박테리아 제거 기술 개발



조철훈(농생명공학부)

KAIST 물리학과 최원호 교수, 서울대 조철훈 교수 공동 연구팀은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를 통해 페트병, 음식물 등에 존재하는 대장균, 박테리아 등 일명 바이오필름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플라즈마를 물에 처리해 활성화시켜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이용해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기존 기술보다 안전하고 손쉬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플라즈마를 물에 처리시켜 수용액으로 만들어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유해한 미생물이 겹겹

이 쌓여 막을 이룬 형태를 뜻하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플라즈마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활성종은 수산화기(하이드록시기, -OH), 오존, 과산화수소, 아질산이온, 활성산소 등이다. 연구팀은 그 중 수산화기가 다른 활성종에 비해 100배에서 1만 배 낮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산화력이 높아 바이오필름 제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플라즈마로 수산화기를 최대한 많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

손성우 기자

<2018. 03. 09 농민신문>

농식품부 '농업가치' 담은 헌법 개정안 내놨다



임정빈(농경제사회학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까지 운영된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부 차원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5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에 이 개정안이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민은 농업·농촌에 대해 식량공급뿐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와 아름다운 경관·쉼터를 제공하고,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국가는 농업의 역할과 공익적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농민에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이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룡기자

<2018. 04. 06 한국농어민신문>

“스마트팜 R&D,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을”



손정익(식물생산과학부)

농식품부와 해수부, 과기부, 산업부, 농진청이 지난 3월 28일 충남 부여문화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인 '스마트팜 분야 R&D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5개 부·청은 스마트팜 분야를 혁신성장동력 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R&D 기획안을 마련했다. 스마트팜 현장 확산을 통한 농어업의 첨단화 및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안에는 스마트팜 분야별 R&D통합 로드맵, 스마트팜 모델개발 및 확산을 위한 실증·표준화 추진계획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농축수산업과 타 산업분야 신기술의 융·복합, 첨단기자재 등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

한 연관산업 육성 등 스마트팜 R&D의 외연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조성',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국정과제의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R&D역량을 결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팜시장에 대응해 범부처 차원에서 R&D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과제에 대한 R&D기간이나 농어민들의 기술수용능력 등을 고려해서 R&D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손정익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는 "다부처 기획은 바람직하지만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작물수출이 좋은지, 기술수출이 좋은지 R&D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이 팽창하는 것에 대응해 기술수출을 염두에 둔 R&D기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상현 기자

mg까지 소중한 당신을 위한 한끼 식사 <밀리밀>



식사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누군가는 간편하고 손쉽게 영양을 섭취하기를 원한다 싶으면 다른 누군가는 극상의 '맛'을 위해 식사를 하고, 누군가는 음식의 성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를 한다.

소비자만 5,125만명, 국내 시장 규모만 164조인 식품 시장에서, 사람마다 식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제각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에 부합하는 한 끼 식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2017년에 설립한 것이, 스타트업 회사 밀리밀이다. 새학기를 맞아 이번 뉴스레터 42호에서 농기자는 '떠오르는 대체식 시장의 강자' 밀리밀을 인터뷰했다.

밀리밀은 2017년 3월 서울대 출신의 세 명의 친구, 박진세(농경제사회학부 09), 전민관(의류학과 09), 이우빈(식물생산과학부 10)에 의해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물만 넣으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밀리밀의 식사 대체식품은 현미기반 파우더에 비트루트, 녹차, 초콜릿을 믹스하여 풍부한 맛을 낸다. 270kcal에 10g 이상의 단백질, 12종의 비타민 등을 함유해 영양적으로도 풍부한 밀리밀의 제품들은 2016년, 하이트진로의 '청년창업리그'를 통해 선발되고, 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윤민창의 투자재단의 투자를 유치한 밀리밀의 야심작이다. 이런 밀리밀이라는 이름은 대표진이 가진 비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데, 바로 '사람들에게 밀리그램 단위까지 맛과 영양을 설계하는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숫가루, 선식보다는 순하고, 기존 시장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을 찾고 싶었고, 농촌의 중요 과제인 쌀 소비량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 고민을 거치다가 순하지만 맛있고, 국민의 선호도도 높은 쌀을 선택했다." 대체식도 식사만큼 맛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품개발에만 1년을 투자했다고 한다. 밀리밀만의 차별화된 공법으로 로스티드 현미 파우더를 만들어서 순하고 '정말 맛있는' 제품을 만들었다. 밀리밀의 제품을 접한 소비자들은 밀리밀의 '맛'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밀리밀의 출발은 박진세, 전민관, 이우빈 대표가 처음 만난 C-stage라는 학회에서 시작되었다.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비전과 생각, 고민들은 각각 달랐다. 그러나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 대체식품은 현대인들의 니즈와 쌀 소비를 늘려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태를 모두 사로잡을 수 있는 제품이었다.

물론 초기 준비 과정에서 많은 역경들도 있었다. 박진세 대표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법적 절차라고 말한다. 처음 하는 식품 사업이다 보니 제품을 만들고,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의뢰를 맡기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금전적인 제약 역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며 금전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 학

생들에게 이우빈 대표는 다양한 공모전과 창업경진대회에 나가기를 권장한다. 밀리밀 같은 경우, 숭실대학교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것이 보다 더 큰 규모로 진출하는 도약점이 되었다고 한다. 그 외의 서울대학교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지원사업 선정 및 하이트 진로 청년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다양한 외부 투자를 유치하여 현재 금전적으로 안정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밀리밀이다. 경제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었기에 앞으로의 밀리밀 성장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이제 밀리밀은 단순한 상품 제공을 뛰어넘어 소비자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그들과 소통하며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다.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런칭하여 실시간으로 상품을 우리 집 문 앞까지 배송하는 것이 밀리밀의 앞으로의 목표다.

농생대 학생들에게

두 대표들에게 농생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물어봤다. 두 동문은, 먼저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라도 '두려움 없이 해보기'를 추천했다. 모두가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기 때문에 직접 해보기 전엔 알 수 없는 것들이 다소 존재하고, 농업 스타트업의 경우는 타 산업 대비 그 수가 많지 않아 초창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했다.

물론 농업 관련 산업이 아니더라도, 비전공자들은 전공자들에 비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데서 뜻깊다. 따라서 특히 창업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기를 추천하며, 그 단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밀리밀 오피스에 와서 함께 생각을 나누기를 권하였다. 두 대표들은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으로 학창시절에 C-stage, MCSA 등의 경영전략학회를 경험하는 것도 추천했다.

또한 두 대표는 농생대 학생들에게 학부시절 경험해보기 좋은 교내의 활동으로 글로벌 챌린저 활동과 농생대 창업경진대회를 추천했다. 글로벌 챌린저를 위해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팀을 모으고, 실행하고, 해외 외지를 누비는 것이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자금 지원, 네트워크 마련은 물론 창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준다. 실제로 밀리밀의 대표들 역시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고, 박진세 동문의 경우 아보카도 스무디로 2등을 수상한 바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밀리밀에서는 최근 해외수출, 판로 확대 등 새롭게 맞닥뜨리는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고 도전할 인재들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없더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하여 문의하거나 오피스에도 찾아와달라고 강조했다. 밀리밀 오피스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있으며, 501번을 타면 서울대학교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대체식이나 밀리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꼭 한 번 방문해주기를 추천한다.

▶ 학생기자단 제6기 송이레, 제9기 김민지, 제9기 김정효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역대 누적금액 : 29,461,014,970원

기금출연 (2018. 01. 01.~2018. 04. 30.)

당기 누적금액 : 267,457,658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후원자00159	70,000,000	한생연생명과학박물관	6,000,000	권오상 외 2명(농경제사회학부 교수)	800,000	김대우(수목원)	120,000
정윤환(임학 56)	50,000,000	(주)비엔피인터내셔널	5,000,000	송인홍(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400,000	서민영(수목원)	80,0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1,619,078	(주)프로첼코리아	5,000,000	박승재(농공학 73)	400,000	하기호(학술림)	80,000
(주)비엔원	12,000,000	(주)한성티앤아이	3,000,000	최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400,000	류준구(기획실)	40,000
대한사료주식회사	12,000,000	(주)코스캠	3,000,000	후원자00184	400,000	손창은(학술림)	40,000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0,333,320	(주)브리텍	3,000,000	이인복(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333,320		
이병일(농생대 명예교수)	10,000,000	채영재(농산업교육과 97)	2,500,000	강문성(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333,320		
아시아중모(주)	10,000,000	송강산업(주)	2,400,000	최인규(산림과학부 교수)	333,320		
김태준	10,000,000	재기농식품 경영유통 최고위과정 동회	2,000,000	최진용(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333,320		
(주)농우바이오	10,000,000	후원자00065	1,666,660	손영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333,320		
(주)이엔티	10,000,000	네이처그로(주)	1,300,000	김성배(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320,000		
		(주)누보	1,092,000	현진호(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	200,000		
				우재성(산업인력개발학 05)	200,000		
				강상호(학술림)	200,000		
				이기훈(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	200,000		

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 건립기금 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역대 누적금액 : 1,897,922,000원

기금출연 (2018. 01. 01.~2018. 04. 30.)

출연 합계 : 340,500,000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김용복((서울)영동농장그룹 명예회장)	200,000,000	이학래(산림과학부 교수)	2,000,000	김진모(식물생산과학부 교수)	800,000
서병륜(로지스올 그룹 회장(농공 69))	100,000,000	장판식(식품·동물생명공학부)	2,000,000	나승일(식물생산과학부 교수)	400,000
장세권(농공 70)	20,000,000	김관수(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00,000	양태진(식물생산과학부 교수)	400,000
		김용노(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	2,000,000	정봉진(농학 73)	400,000
		고희중(식물생산과학부 교수)	2,000,000	하중규(농생대 명예교수)	400,000
		이중용(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	1,000,000	김호택(농생대 명예교수)	400,000
		작물생명과학전공 대학원생 일동	1,000,000	서든영(농화학 63)	400,000
		신희순(잠사 69)	1,000,000	박일권(산림과학부 교수)	300,000
		강규영(농화학 68)	1,000,000	현은제(원예 83)	300,000
		김용희(지역시스템공학 03)	1,000,000	김용상(농화학 83)	200,000
		강규석(산림과학부 교수)	1,000,000	임용재(농업경제학 67)	200,000
				김동진(산림과학부 14 김성혁 父)	120,000
				임상준(산림과학부 교수)	100,000
				박준호(환경재료과학 02)	80,000

[동문동정]

- ▶ **박두용** 동문(농학82)은 12월 2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제14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 ▶ **이영택** 동문(농학77)은 1월 1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제3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 ▶ **시동민** 동문(농화학80)은 1월 10일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회의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 **허은철** 동문(식공90)은 1월 14일 올해의 코벨인 상을 수상하였다.
- ▶ **송희연** 동문(임학57)은 2월 19일 금강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 ▶ **이병호** 동문(농경제75)은 2월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 ▶ **김용하** 동문(임학79)은 2월 19일 한국수목원관리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 **이경준** 동문(임학63)은 2월 27일 (사)한국산림정책연구회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 ▶ **김정규** 동문(잡사72)은 3월 1일 (주)국동의 부회장으로 승진하였다.

[교수동정]

- ▶ **장판식 교수**(농생명공학부)가 2017년 12월 29일에 농식품 과학 기술 유공 포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 **나승일 교수**(산업인력개발학전공)는 2018년 1월 1일부터 한국농산업교육학회의 학회장을 맡게 되었다.
- ▶ **Brian Kim 교수**(농경제사회학부)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임기로 한국지역학회 학회장에 임명되었다.



- ▶ **김기선 교수**(식물생산과학부)는 2018년 1월 24일 개최된 한국잔디학회 정기총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제2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 **이석하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2018년 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의 임기로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 ▶ **서진호 교수**(농생명공학부)가 2018년 4월 20일에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수훈하였다.



[동창회 소식]

▶ 2018 새해인사회



2018년 1월 9일 10시 반부터 호암 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68학번 주관의 새해인사회가 있었다. 윤복희 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류관희 동창회장의 신년사와 모교 이석하 학장의 축사 및 한태룡 68학번 대표의 기념사가 있었다. 동문들간의 세배와 학생회 후배들의 선배들에 대한 세배에 이어 원로들의 복떡 자르기 행사를 한 후 각 학과 참석자들의 기념촬영이 있었다. 이어서 68학번 동기들의 사진촬영과 68학번 대표들의 사진촬영을 끝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마쳤다.

동창회는 즐겁고 알찬 2018년 새해인사회를 위해 애쓴 68학번 대표들과 전체 동문들께 동문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18년은 우리 동문 모두 건강하고 즐겁고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 2018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서울대학교 상록문화재단은 2018년 2월 21일 (수) 오전 11시 모교 75-1동 203호에



서 2018년 제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류관희 이사장과 정윤환 동창회 고문, 임용택 동창회 고문을 비롯한 장학금 출연자들과 모교 이석하 학장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49명의 장학생에게 총 83,559,000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수여식이 끝나고 참석자 전원이 두레미담에서 축하 오찬을 즐기는 따뜻한 시간도 가졌다.

상록문화재단은 서울대농생대동창회원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으로 장학사업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포상사업과 학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 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학술림 T.880-4526 F.873-2031
모작 T.(033)339-5901 F.(033)339-5909
농학도서관 T.880-4774~5 F.884-0182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농업공학실 T.880-4619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식품공장 T.880-4824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식품병원 T.880-4697 F.880-46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유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세균의사소통창의연구단 T.880-4686 F.873-2317
식품안전성 및 특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 역량 강화사업단 T.880-4631 F.873-3565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유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최고농정정책과정 T.880-4735 F.886-4898
농식품경영 유통최고위과정 T.880-4735
국기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5354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홈페이지 <http://greenbio.snu.ac.kr/>
T.(033)339-5680 F.(033)339-5689

★ 소식을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T. 880-4538, sys4477@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